

가짜 토종닭 발본색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정두영)는 가짜 토종닭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월 31일 유사 토종닭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S 부회장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토종닭 업계 관계자들이 안산지역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육계시장에 백세미가 문제와 유사하게 토종닭에서도 산란실용계에서 생산하여 토종닭을 사칭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토종닭협회 게시판에는 토종닭을 사칭한 병아리를 생산한다는 S 부회장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S부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암암리에 토종 종계 수탉과 산란실용계 암탉을 교배해 유사 토종닭 병아리를 생산, 싼 값으로 사육농가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량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농가에 분양돼 각종 질병으로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균일하지 못하는 등 사육농가들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사 토종닭이 시장에 유입되어 가격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관계자들은 S 부회장을 항의방문하여 불법종계의 폐기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문정진 토종닭협회 사무국장은 “소비

자의 요구는 안전성을 원한다. 그러나 이런 불량종계로 인해 질병에 저항성이 낮은 병아리를 양산하고 항생제 사용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를 외면하는 꼴이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토종닭 시장이 어두울 것”이라 전제하고 “불법종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며 협회에서도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농장을 직접 방문해 3만여수의 불량종계를 폐기할 방침이었으나 S부회장 대표자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무단침입 등 법적인 문제를 우려해 토종닭협회는 공식 문서를 S부회장에 보내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기간 안에 모임을 갖고 불법종계

전량을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부회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관계자는 “꼭 계통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병아리를 분양받은 한다”고 전하며 “싼 가격을 미끼로 차후 더 큰 피해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혈통보증서가 없는 부회장들이 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을 닫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불법 종계로 인한 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경각심을 갖길 당부했다.

(취재 | 김영훈 기자)

